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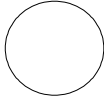
2021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무용원 이론과(무용이론)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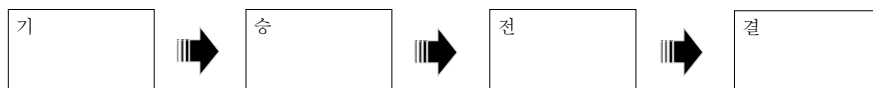
춤과 글쓰기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	--------	--

아래 5개의 항목을 포함하는 춤을 창작하고, 1-7번에 제시된 질문 순서대로 글을 작성하시오.

가을하늘	발차기	마스크		pandemic
------	-----	-----	--	----------

1. 춤의 제목을 제시하시오.
2. 춤에서 자신의 어떤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소개하시오.
3. 춤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4. 춤에서 표현 수단으로 사용한 움직임의 유형(혹은 장르)을 설명하시오(여러 유형일 경우,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5. 춤을 기-승-전-결의 4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되, 춤의 전개 방향과 수험생(출연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춤의 주요 전개 구도를 다음의 사각형(가상의 무대) 내에 순차적으로 소개하시오.



(위 사각형들의 아래쪽 외부를 심사위원의 관람석으로 가정하고, 맨 왼쪽 칸을 도입부, 맨 오른쪽 칸을 종지부로 정해 전개 구도를 작성하시오.)

6. 춤의 구성 원리를 소개하시오.

- 1) 공간적 원리
- 2) 시간적 원리

7. Pandemic에 대해 아는 대로 소개하시오.

- 필독: 수험생 유의 사항

- * 춤 만들기 시간(90분간)에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이 볼 수 있는 문항의 내용을 문제지에 적는 행위와 수험생 간 대화 및 소통은 금지됩니다.
- * 춤 만들기 시간(90분간)의 마지막 10분 동안에는 2분 간격으로 시간을 공지하여 춤을 2분 이내로 조정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 문항 답안 작성 시간(60분간)에는 답안지가 주어지며 이동과 수험생간 대화 및 소통 행위가 금지됩니다.
- * 문항 답안 작성 분량은 문항에 따라 1~4줄씩 지정되며 전체 분량은 A3 크기 답안지의 60% 정도 이내로 제한됩니다.
- * 본 문제지는 연습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답안지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무용원 이론과(무용이론) 2차

논 술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 * 답안지는 모두 3장이 제공되며, 3장 분량 이내로 답안을 작성하시오.
- * <문제1> 한자 음을 답안에 적으시오.
- <문제2> 영어지문을 번역하시오.
- <문제3> 자신의 생각을 주어진 질문(1-3)에 순서대로 답안에 작성하시오.

<문제1> 다음 한자 각 낱말의 음을 답안지에 번호 순서대로 1), 2), 3), ~ 20)으로 구분해서 음만 적으시오.

- 1) 休息 2) 骨格 3) 環境 4) 創造 5) 公演 6) 心想 7) 抽象 8) 春秋 9) 果實
 10) 知音 11) 雅樂 12) 滿足 13) 觀察 14) 轉換 15) 獨立 16) 健康
 17) 生活 18) 中國 19) 易地思之 20) 氣韻生動

<문제2> 다음 영문 1-3을 각각 번역하시오.

1. From a young age, far more girls than boys are interested in dance, so much so that girls are estimated to outnumber* boys 20-to-1 in dance classes. Stereotypes* about effeminacy* and homosexuality* have pushed even as more boys have made their way into dance classes over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Their experiences reveal a great deal about the gendered* nature of childhood and the ways in which larger social norms and cultural associations affect the opportunities, expectations, and experiences of real children. Boys have made up a steadily growing number of dance students, yet they still have remained largely invisible in dance classes.

(참고문헌: Klapper, Melissa R. (2017). *The Journal of the History of Childhood and Youth*. 10 (2): 248-267.)

2. Dancing may also be good for your mood. It has been shown to reduce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nd boost* self-esteem, body image, coping ability, and overall sense of well-being, with the benefits lasting over time. In one study, it even helped control “emotional eating” in obese* women who eat as a response to stress.

3. If dancing gets your heart rate up, it can be a good form of aerobic exercise, which is good for your heart in general. One study even found that in people with stable chronic* heart failure, slow-fast waltzing improved heart and blood vessel function and overall quality of life as much as a moderate aerobic exercise program did.

outnumber: ...보다 수가 더 많다.

stereotypes: 고정 관념, 정형화된 생각

effeminacy: 여자 같음, 나약, 연약

homosexuality: 동성애

gender: 성, 성별

boost: 끌어올리다

obese: 비만

chronic: 만성적인

<문제3> 위의 지문의 내용을 읽고 다음 문제(1-3)에 답하십시오.

- 1) 위의 1-3 지문에 대한 주제를 적으시오.
- 2) 위의 1-3 지문에 대한 연구 질문을 적으시오.
- 3) 위의 지문들을 토대로 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십시오.

2021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무용원 이론과(예술경영) 1차

글쓰기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1. 아래의 글은 한 예술가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이다. 한 명의 예술가를 정하여 그 분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쓰시오(40점)

김민기를 아시나요

2020년 호암상 예술 부문 수상자는 김민기입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호암상은 한국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질 만큼 그 권위를 높이, 그리고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입니다. 삼성을 창업한 호암 이병철 회장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호암상은 해마다 과학, 공학, 의학, 예술, 사회봉사의 다섯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3억원과 기념 메달이 수여됩니다.

김민기의 호암상 수상을 두고 예술계 전반에서 이와 관련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으면 바라고 또 기대했지만 수상자 선정에 알리는 짙막한 기사 몇 줄 말고는 아무런 반응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몇해 전 밥 딜런이 노벨상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도 다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더니 이번에도 그럴 모양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머리 속을 맴돕니다. 누군가 그의 수상이 의외라고 생각한다면 선정의 기준과 과정을 물어야 하고, 그의 수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라면 이렇게 늦어진 까닭이라도 따지고 싶으려만 이도 저도 아닌 모양입니다. 혹여 김민기의 존재를 모르거나 벌써 잊어버린 이들도 없을 텐데 궁금하다는 말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술상 부문의 역대 수상자의 면면만 보더라도 김민기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박경리와 이불, 정명훈, 오태석, 강수진, 임권택 등 그들의 활동 영역은 문학이거나 미술, 음악이 아니면 연극이나 무용, 혹은 영화 가운데 하나이지만 김민기의 삶에서 그런 영역을 찾고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술학도였으나 음악에 빠져 곡을 만들어 가사를 붙이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로의 소극장을 꾸리며 연극과 뮤지컬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기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침이슬”과 “상록수”와 같이 그가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노래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그의 삶은 소극장 “학전”에서 심고 가꾼 공연들과 사람들 속에 오롯이 녹아서 담겨 있습니다. 김민기의 손을 거친 수 많은 작품들 가운데 특별히 “지하철 1호선”은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 공연예술의 역사 속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우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작품으로 1994년 초연된 이후 15년 동안 4,000회의 공연을 기록하며 7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대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독일 “그리프스 극단(Grips Theater)”의 “1호선 (Linie 1-Das Musical)”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새롭게 만든 뮤지컬입니다.

폴커 루트비히가 대본을 쓰고 비르거 하이만이 곡을 붙인 원작을 김민기가 번안하고 각색하여 무대에 올렸습니다. 백두산에서 만난 한국 남자 제비가 건네준 주소와 사진만을 믿고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서울역에 도착한 연변 처녀 선녀가 하룻동안 지하철 1호선에서 마주치는 여러 사람들의 갖가지 행태와 사연을 해학과 풍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공연 기간과 횟수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나라 뮤지컬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에서는 처음으로 라이브 밴드를 올렸는가 하면 11명의 배우가 80개의 역할을 연기하는 1인 다역을 시도했고 소극장의 한계를 극복한 전동 계단식 무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초연 이후 여러 차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개작을 거듭한 끝에 원작자인 폴커 루트비히로부터 원작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1년에는 독일과 일본,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2007년에 독일문화원에서 수여하는 괴테 메달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한국인으로는 윤이상과 백남준에 이은 세 번째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김민기는 1951년 전북 익산(당시는 이리)에서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가 퇴각하던 인민군에게 죽음을 당해 유복자로 자랐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산원 자격증을 가졌던 어머니는 아이 받는 일을 하여 홀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재동국민학교에 입학한 김민기는 경기중학을 거쳐 경기고를 졸업했습니다. 중·고 시절 6년 동안 미술반에 들어가 재능을 살렸고 피아노를 전공한 셋째 누나의 영향으로 홀로 기타를 익히며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1969년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했지만 틀에 박힌 수업을 견디지 못했고, 첫 학기를 낙제하여 휴학한 다음부터 본격적인 음악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창이자 미대 동기인 김영세와 도깨비 두 마리라는 뜻의 “도비두”를 만들어 듀엣 활동을 시작했고 YWCA 포크 동아리 ‘청개구리’에서 초등학교 1년 후배인 양희은을 만나 공동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 ‘아침이슬’이 들어간 솔로 앨범을 발표하여 싱어송라이터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후 20년 동안 그의 삶은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놓은 노래와 음반마다 제재를 당하거나 금지되었고 이름을 숨기고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일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1집에 실린 곡 중 제일 먼저 방송금지된 노래는 ‘꽃 피우는 아이’였습니다. “무궁화꽃을 피우는 아이, 이른 아침 꽃밭에 물도 주었네. 날이 갈수록 꽃은 시들어 꽃밭에 울먹인 아이 있었네”로 시작하는 가사가 문제였습니다. 가명을 써서 양희은의 음반 “거친들 들판의 푸르른 솔잎처럼”에 들어갈 노래들을 작곡해 주었지만 수록곡들 가운데 “늙은 군인의 노래”의 가사 또한 권력층을 비꼬는 것으로 여겨져 금지곡으로 묶였고 수록된 음반까지도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는 살기 위해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해야 했고 한 때는 탄광의 광부였다가 농부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의 체험은 또 다른 삶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978년에는 노래곡 “공장의 불빛”을 만들었고 1987년에는 탄광촌 아이들을 다룬 노래곡 “아빠 얼굴 예쁘네요”를 만들었습니다. 1989년에는 농촌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일순, 박재일, 김지하, 최해성 등과 더불어 생태운동 단체인 “한살림 모임”을 만들어 초대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한살림은 조합원들이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해서 전국에 있는 직영매장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 수만 41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활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 운동에선 최고의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기는 농사 짓던 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라고 말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땅을 떠난 다음에 일구어 낸 그의 삶 또한 농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 터를 잡은 “학전”의 이름부터가 그렇습니다.

“학전(學田)이 한자로 배울 학에 밭 전 자다. 학전 처음 열 때 내가 한 말이 있다. 여기는 조그만 곳이기 때문에 논밭 농사가 아니다, 못자리 농사다. 못자리 농사는 애들을 춤춤하게 키우지만 추수는 큰 바닥으로 가서 거두게 될 거라고.”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물 대신 사람을 키웠습니다. “학전 독수리 오형제”라 불리는 김윤석, 황정민, 설경구, 조승우, 강현성은 물론 이정은, 배성우, 배해선, 김희원, 안내상, 김원해, 방은진 등 오늘날 무대와 스크린을 주름잡는 수 많은 별들이 학전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가수로는 김광석과 유재하, 나윤선이 그곳을 거치며 성장했습니다.

학전이 어려웠을 때 김민기는 무명의 김광석에게 선뜻 학전의 무대를 내어주었습니다. 뜻밖에도 공연은 연일 매진이었고 그 덕에 학전도 살고 김광석 또한 그 무대를 발판으로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김민기는 김광석 추모사업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광석 다시부르기 프로젝트도 김민기의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프로젝트로 5억 가까운 돈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김광석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김민기의 말도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1970년부터 1984년까지 작곡된 김민기의 대표곡 아홉 곡을 김동성이 관현악으로 편곡한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같은 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임헌정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클래식 김민기”란 제목의 공연을 열어 그 곡들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날 공연장에 나타난 김민기를 보았다는 말은 있었지만 공식석상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낙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데다 사람들이 자꾸만 오래 전 그가 만든 노래에 그의 존재를 가두려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난 내 노래를 듣기 싫은 게, 오래 입다 벗어놓은 내복 같은 말이야.”

한겨레 신문에 실린 김민기의 말입니다.

“쟁이는 어제 했던 작업을 부정해야 해. 안 그러면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

잘 나가는 공연을 중단한 까닭을 묻자 ‘돈만 벌다 보면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거 같아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인 즉 ‘쟁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하면 돈이 될지는 따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딱 꽂히면 거기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게 쟁이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날로 알팍해지는 요즈음 참으로 쟁이라고 부를 만한 이들이 새로 나오기는 글렀나 봅니다. 하도 잘 꾸며 걸은 요란하여 그럴 듯하지만 속이 텅 비어 작은 구멍으로도 바람이 마구 새어나옵니다. 그 많은 쟁이들은 다 어디로 가고 야바위꾼들만 득실듭니다. 옛 말쑤에 이르기를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늘 가락을 품고 있고 매화는 일생을 추위에 떨어져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했거늘 모두들 어김없이 얇은 껍로 사람들을 끌어들이 가벼운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하거늘 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예술마저 어지러운니 삶이 더 팍팍하고 힘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기뻛고 왜 슬펐는지를 서술하시오. 지금까지 스스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일과 가장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자랑스럽고 왜 부끄러운지를 서술하시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또 하면서 특별히 고마운 사람과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고맙고 왜 미안한지를 서술하시오. (30점)

※ 사람을 언급할 때는 이름과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은 쓰지 마시오.

3. 2050년 한 언론사로부터 귀하의 2020년을 회고하는 기고문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관련 글을 작성하시오. (30점)

2021학년도 예술사 신입생 선발 <무용원 창작과>

즉흥 시험 주제

움직임으로 본인(자기)을 표현해 보시오.

(2분 이내)

K² ART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예술사과정 무용원 신입생 선발시험

창작과 2차 <춤구성> 과제

본인의 소지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품을 구성하시오

이 문서는 본 대학교의 인시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인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예술사과정 무용원 신입생 선발시험

창작과 2차 <글작성> 문제

출제의 주제와 내용을 설명하시오